

진통끝 '서울 선언' 세계경제 이정표 제시



글로벌 금융안전망 본궤도...한국위상 강화

국 관심사인 개발 의제는 '서울 컨센서스'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G20 외연 확장과 위상 강화에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통 끝 서울선언 탄생...결실 풍성=1박 2일간의 진통 끝에 접점을 찾은 서울선언은 서문 20개 항에 합의문 74개 항으로 구성됐다. 한글판이 A4 용지로 40쪽에 달한다. 여기에 부속서도 3개 따라붙으면서 지금껏 5 차례의 정상회의 가운데 가장 방대한 분량이다. 그만금 서울회의가 다른 의제의 스펙트럼이 넓었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결실이 풍성한 것은 2008년 11월 1차 회의 때부터 논의됐던 의제 가운데 상당 수가 이번에 완성된다 회의를 거듭하면서 추가된 의제들에 대한 합의도 달아나기 때문이다. 지난 2년의 노력이 투영된 결과물에 대한 화룡점정이 서울에서 이뤄진 셈이다.

의제의 흐름은 서울을 계기로 당면한 위기 극복 문제를 일단락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중장기 성장 문제를 논의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

◇금융안전망·개발 이슈 '급물살'= 지난 2년간 논의됐던 금융규제 강화 방안은 이번 회의를 통해 주인되면서 장기 일정에 따라

실천을 눈앞에 두게 됐다. 코리아 아너셔티브 가운데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경우 1단계 조치로 IMF가 마련한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설을 활성화하고 2단계로 시스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발상국의 지지를 받는 개발 의제의 경우 '다 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행동계획'을 각각의 부속서에 담아내면서 향후 실천을 향한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돋는 방법론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금융기구 개혁의 경우 지난달 경주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5일 IMF 이사회가 결의한 IMF 워터 개혁안을 그대로 주인하고 지난 번은 이전 작업을 2012년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선진국이 지분 6%포인트를 신증·개도국에 넘기기로 하면서 중국이 6위에서 3위로 급부상하고 한국이 18위에서 16위로 상승하게 됐다.

이는 IMF에서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중심으로 한 신증·개도국의 발언권이 높아지면서 경제 권리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셈이다. /연합뉴스

G20(주요 20개국) 정상들이 12일 채택한 '서울 선언'은 경제위기 재발을 막는 종합처방과 실천계획을 담아내고 앞으로 세계 경제가 나아갈 길을 설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강화된 자본과 유동성 규제인 '바벨Ⅲ'를 최종 확정하며 새로운 금융 규범의 출범을 알렸다. 국제통화기금(IMF) 워터(지분) 개혁을 일단락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신증·개도국의 목소리를 키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환율 관련 3대 원칙을 정상들이 천명하고 최대 쟁점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진일보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한국이 주도해온 '코리아 아너셔티브'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본궤도에 올랐고 개도국

APEC 오늘 일본서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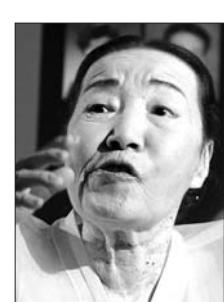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3일 일본 요코하마(横浜)에서 개막돼 역내 경제통합과 무역·투자의 자유화 촉진을 논의한다.

11일 의장국인 일본 정부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21개 국가·지역의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요코하마에서 13일 개막돼 14일까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역내 경제통합, 보호무역주의 배경, 성장전략 등을 논의한 뒤 정상선언(요코하마 비전)으로 이를 구체화한다. 13일에는 성장전략, 14일에는 무역자유화를 집중 논의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경제통합구상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역(FTAAP)'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한중일', 여기에 인도·호주·뉴질랜드를 합한 '아세안+6'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1인창무극 공연진 여사
도문화재 예능보유자로



29일 서울광장서 野·시민·종교단체와 범국민대회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예산국회를 앞두고 대대적 여론전을 벌여 '대포폰·압수수색 청탁'에서 물려 있던 4대강 문제를 재점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

장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다른 이당 및 종교단체,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장외집회인 '4대강·대운하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준비기구도 구성했으며 지역별로 동원령도 내린 상태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영산회상도, 삼세불회도, 지장시왕도 등 영광 불갑사 내 조선시대 불화 3점을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영광군은 12일 전남도가 판소리 1인 창무극(唱舞劇) 심청가를 도 무형문화재 제29-6호로 지정하고 공연진(77) 여사를 예능보유자로 최종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도 문화재위원회는 공연 여사의 1인 창무극이 전통 판소리에 기반을 둔 변용된 형태로 판단하고, 공연 여사의 주 연행(演行) 종목인 심청가를 무형문화재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영산회상도, 삼세불회도, 지장시왕도 등 영광 불갑사 내 조선시

대 불화 3점을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박준영 전남지사의 영

산강 사업 찬성이 자칫 당내 '4대강 엇박자'로 비쳐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적극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우원식 대외협력위원장은 12일 확대간부 회의에서 "지난 10일 천주교측에서 손 대표를 찾아와 영산강 사업과 관련, 대규모 준설 중지, 지역민과 소통, 겹증위 구성을 촉구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박 지사가 이에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산강은 특수성이 있고 운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준설과 보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보와 준설은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4대강 저지특위 위원장인 이인영 최고위원은 최근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와 만나 4대강 반대를 위한 공동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김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의 경남안보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박준영 전남지사의 영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예산국회를 앞두고 대대적 여론전을 벌여 '대포폰·압수수색 청탁'

에서 물려 있던 4대강 문제를 재점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

장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다른 이당 및 종교단체, 시민

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장외집

회인 '4대강·대운하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

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준비기구도 구성

했으며 지역별로 동원령도 내린 상태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예산국회를 앞두고 대대적 여론전을 벌여 '대포폰·압수수색 청탁'

에서 물려 있던 4대강 문제를 재점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

장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다른 이당 및 종교단체, 시민

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장외집

회인 '4대강·대운하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

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준비기구도 구성

했으며 지역별로 동원령도 내린 상태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예산국회를 앞두고 대대적 여론전을 벌여 '대포폰·압수수색 청탁'

에서 물려 있던 4대강 문제를 재점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

장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다른 이당 및 종교단체, 시민

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장외집

회인 '4대강·대운하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

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준비기구도 구성

했으며 지역별로 동원령도 내린 상태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예산국회를 앞두고 대대적 여론전을 벌여 '대포폰·압수수색 청탁'

에서 물려 있던 4대강 문제를 재점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

장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다른 이당 및 종교단체, 시민

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장외집

회인 '4대강·대운하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

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준비기구도 구성

했으며 지역별로 동원령도 내린 상태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예산국회를 앞두고 대대적 여론전을 벌여 '대포폰·압수수색 청탁'

에서 물려 있던 4대강 문제를 재점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

장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다른 이당 및 종교단체, 시민

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장외집

회인 '4대강·대운하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

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준비기구도 구성

했으며 지역별로 동원령도 내린 상태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예산국회를 앞두고 대대적 여론전을 벌여 '대포폰·압수수색 청탁'

에서 물려 있던 4대강 문제를 재점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

장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다른 이당 및 종교단체, 시민

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장외집

회인 '4대강·대운하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

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준비기구도 구성

했으며 지역별로 동원령도 내린 상태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예산국회를 앞두고 대대적 여론전을 벌여 '대포폰·압수수색 청탁'

에서 물려 있던 4대강 문제를 재점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

장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다른 이당 및 종교단체, 시민

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장외집

회인 '4대강·대운하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

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준비기구도 구성

했으며 지역별로 동원령도 내린 상태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예산국회를 앞두고 대대적 여론전을 벌여 '대포폰·압수수색 청탁'

에서 물려 있던 4대강 문제를 재점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

장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다른 이당 및 종교단체, 시민

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장외집

회인 '4대강·대운하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

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준비기구도 구성

했으며 지역별로 동원령도 내린 상태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예산국회를 앞두고 대대적 여론전을 벌여 '대포폰·압수수색 청탁'